[240321] 22대 총선, 각 정당은 죽음의 체제를 버리고 생명의 체제로 기자회견 발언문

제안자 발언 1_ 박득훈(기후위기기독교인연대 이사)

수년 전 부터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자랑해 왔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라는 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이는 정치인들을 비롯한 지배세력과 시민사회가 같이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과 지배세력은 권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 막중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동안 뜻있는 시민들은 지구온난화에서 비롯되는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기후위기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심지어 올해 사과와 배의 가격 폭등 근저에는 기후위기가 있다는 과학적 분석결과가 최근에 보도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분명한 정책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를 바꿔나가지 않는 한, 우리를 포함한 생태계의 미래는 매우 암담합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슬프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과 자연을 평등한 동반자로 창조해 주셔서 정의와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자책과 자괴감에 매몰되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 뜻있는 그리스도인 유권자들은 22대 총선에서 권력 쟁취에 눈이 멀어 이전투구에 몰두하는 정당들과 총선후보들에게 단 한 표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모든 정치인들은 유권자들과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후위기 극복에 전력하는 행동을 보여주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안자 발언 2_구교형(성서한국 이사장)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나라가 소멸할 것 같다고 아우성이다. 실제로도 심각하다. 한국 정부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한해만도 52조원(출생아 1인당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온갖 다양한 지원을 제시하고, 어느 그룹은 직원 출산 1명당 1억의 장려금까지 지급한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다.

그럴수 밖에 없는 게 선심과 공약은 남발하지만 실제 젊은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한 고민 전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매우 중요한 기후위기와 환경적 조건에 대해 무관심을 넘어 여전히 과제에 역행하고 있다.

총선 앞두고 대통령은 지방돌며 막개발, 환경 규제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 온갖 선심공약을 늘어놓고 있을 정도다. 거대 양당 등 각 정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농부는 아무리 힘들어도 앞으로를 위해 씨앗종자만 먹어치우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지금 한국사회와 기성세대는 자녀를 사랑한다면이라도 그들이 살아갈 미래의 씨앗종자를 다 먹어치우려고 한다. 그러면서도 애만 낳으라 한다.

이번 총선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자신은 물론 다음세대 위해서 기후선거하자. 토건정치, 막개발정치, 그린벨트 해제정치, 탄소배출정치 등 기후악당들에게 무자비한 표의 심판을 하자.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하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세력에 소신투표하자.

거대양당에 사이에서 언제나 망설이지 말고, 우리와 다음세대의 미래를 위해 망설임없이 기후정당에 투표하자.

단체 발언_황준의(예수살기 전국 총무)

아버지와 그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이며, 하나님이 만드시고 낳으신 피조물 또한, 그와 한 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는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길과 진리,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오늘도 지구별의 모든 존재안에 말씀으로 살아계십니다.

지구별을 파헤치고 훼손시키며 당장의 이익을 위해 소모시키는 일은 제몸의 살을 베어 먹고 피흘려 죽어가면서도 당장 배가 부르면 좋다는 어처구니 없는 자해행위와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만 즐거우면 되고 오늘 하루만 살면 되는 것입니까?

나와 가족이 연결돼 있고. 이웃과 생명들 모두가 우리와 하나라는 진리를 어찌 모른체하고 속이려 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위한 일입니다.

지구별에 호흡하는 모든 존재들이 피의 호소를 하며 비상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도자라면 그 누구보다도 이 신호에 민감히 반응하고 신속히 대처해야할 것입니다.

당장의 표몰이를 위한 거짓 정책이 아닌 안전사회를 위한 비상대응책을 마련하십시오.

핵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핵진흥정책 중단하십시오.

탄소방출을 극소화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시작하는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앞만 보며 달리던 이 길 앞에 죽음의 절벽이 있는데 운전대를 잡은 자들이 미친듯이 폭주를 즐기고 있는 이 시국을 우리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폭주하는 자들을 끌어내리고 멈춰서 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더 이상의 기다림은 없습니다.

멈추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생명을 택하십시오!

당사자 발언 1_임소연(숨탄것들의 교회 목사)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향해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로부터 왔으며 그로 인해 숨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을 포함한 이 피조세계는 모두 그분의 작품이며 그분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의 사명은 이 세계를 잘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멸종해도 이 세상은 남아 있겠지만, 그 반대라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는 본인이 그러하시듯, 이 세상은 서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인간만을 위한 개발들로 인해 땅에서 울부짖는 저들의 핏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동료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줄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할 것입니다!

당사자 발언 2_강학(양육자 / 하.나.의.교회 성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하.나.의.교회 성도 강학입니다.

평범한 성도이자, 시민인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얼마전 교회에서 기후 위기 강의를 듣고 마음이 너무나 조급해졌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앉아 해결을 기다리기에는 기후 위기가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눈앞의 현실이며, 그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후위기 강의를 듣고, 그날로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전깃불 끄고, 물 아껴쓰라고 했습니다. 기후 위기로 정말로 식량도 물도 부족한 세상이 올 수 있다고도 이야기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 잘 들으라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말이었는데, 너무 심했나봅니다. 저희 딸아이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지구 망하는 거야? 나도 엄마 나이면 좋겠어. 나는 망하는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

그제서야 저는 얼른 수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망하지 않게, 열심히 엄마가 노력할게. 우리가 노력하자.”

엄마는 좋은 세상 다 살고, 망하는 세상 물려주면서, 지금 조금이라도 안 망하게 너네가 잘해라 책임을 떠맡기면서 겁주고 있는 거. 그것이 저의 행태였음을 반성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읊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투표권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투표는 어린이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어린이들이 투표 못한다고 어른들이 자기들 돈 벌 궁리만 하고, 자기들 맘대로, 자기들 세상을 만들어놓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입니다.

이번 총선은 기후정의를 실천하는 총선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보십시오. 어른들이 어떻게 투표하고 결정하는지.

정당별 공약평가 및 7대 요구안_문형욱(기후위기기독인연대 공동대표)

우리는 기후 비상사태로 여섯번째 대멸종을 앞두고 마지막일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죽음의 체제를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개발과 자본의 무한 증식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지속해서는 인류의 미래는 죽음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끝없는 착취와 불평등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려내는 생명의 국회로 탈바꿈 해야합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한 29개의 정당 중 17개 정당만 기후공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후공약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정당은 녹색정의당과 새진보연합 뿐입니다. 그마저도 새진보연합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세 도입만 있을 뿐 그 외 사회의 전 영역에서의 기후 공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외 거대 양당의 경우는 구색 맞추기에 머무르며 온갖 토건 사업과 기후공약이 공존하는 위선적인 그린워싱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금의 시대는 한 분야의 전환만으로는 기후위기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가 넘지 말아야 하는 티핑 포인트로 경고했고 그 시기는 2030년으로 둔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2023년 전세계 연평균 기온이 1.5도를 넘어섰습니다.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미래는 더 빨리 불타 소멸되고 있으며 우리에게 얼마나 남았는지 예측하는 모든 시도보다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회 전 영역에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이행해야합니다.

국회의 주도가 아닌 시장에 맡겨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써, 위임 받은 역할을 내팽개치고 기후 비상사태 앞에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22대** 국회는 기후시계를 늦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회입니다.

22대 국회를 구성할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위선적인 죽음의 체제를 버리고 생명의 국회를 만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전세계적 기후비상사태를 앞두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7대 요구안을 발표합니다. 각 정당은 이 요구안과 더불어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사회가 아닌 생명의 사회를 만들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첫째.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철폐를 위한 ‘기후정의기본법’ 제정하라.

둘째.

재난 안전체계를 마련하여 누구도 기후재난으로 죽지 않는 안전한 삶의 권리를 보장하라.

셋째.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탈핵, 탈석탄 및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하라.

넷째.

에너지, 주거, 교통, 노동, 농업, 여성, 보건, 교육 등 삶의 필수적인 영역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다섯째.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신공항건설, 국립공원 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중단하라.

여섯째.

생명을 죽이고,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는 전쟁무기지원과 방위산업 중단하라.

일곱째.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탄소다배출 기업과 부유층에 ‘탄소소득세’를 부과하고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라.